

<2012년 3월 2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땅에서 성공하는 자는 많은데 하늘에서 성공하는 자는 적다.
2. 땅에서 성공하면 인생 한때요, 길면 두 때다.
3. 하늘에서 성공하면 그 기간이 인간의 시간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기간이다.
4.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은 너무 넓고 성공할 것들이 너무 많다.
5. 욕신이 땅에서 성공해 왔더니 인생 해가 지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끝날 것만 쌓여 있어 영이 가지고 갈 것이 없다.
6. 하늘에서 성공해 왔더니 해 놓은 것이 하늘에 쌓였다. 욕신은 죽고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가니 찬란한 영광의 시작이다.
7. 하늘에서 성공해 왔더니 땅에서 성공한 것까지 모두 하늘에 가 있어 영원하다.
8. 땅에서 성공한 자는 땅만 들고 돈다.
9. 땅의 성공, 명예, 욕망, 권세, 영광은 인생의 해가 기울면 모두 짐이다. 다 벗어 놔야 그나마 가쁜 숨을 쉬게 된다.
10. 하늘의 성공, 명예, 권세, 영광은 인생 서산의 해가 저서 욕신이 죽기까지 모두 지고 안고 누리면서, 욕신이 죽으면 영이 비행기 타고 가듯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누리고 산다.

11. 땅의 성공과 명예와 영광은 때가 되면 육신과 함께 사라지고, 하늘의 성공과 명예와 영광은 영이 가지고 간다.

12. 땅의 성공, 명예, 영광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자기 죽은 시체 하나만 남는다. (1~11번까지는 내가 주님의 지혜를 받아 썼는데, 주님께 하나 말해 달라고 하니 12번 잠언을 주셨다.)

13. 세상에서 지구 세상을 자기 것으로 사서 누렸어도 영을 위해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거지로 살면서 하늘나라의 땅 한 평을 얻고 산 것만도 못하다.

14. 세상을 다 얻고 사는 자나 못 얻고 사는 자나 겨우 자기 인생 살고 간다. (주님의 두 번째 잠언이다.)

15. 세상에서 살 때 하늘나라를 얻지 못한 자는 그 영혼이 거지가 되어 영의 세계에 가서 영원히 고통 받으며 산다.

16. 이 세상은 육을 중심한 세상이라서 영의 세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17. 그러나 이것을 깨달아라. 육은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죽고, 육이 죽으면 영이 영의 세계로 가게 된다. 고로 영은 ‘잠깐 살다가 영의 세상으로 올 테니...’ 하고 걸 세상을 결눈질하고 본다.

18. 영의 세계의 영들은 육의 세상은 자기와 상관없는 세계이므로 육의 세계에는 관심 없이 살아간다.

19. 육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세계로 간 영들은 육의 세계의 생각을 잊고 산다.

20. 육의 세계 사람들도 육을 가지고 사니, 영의 세계에 관심 없이 살아 간다.

21.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의 세계에 눈을 뜨고 자기 영을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은 육이 죽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영의 세계로 간다. 그렇지 않은 영들은 하나님 주권 밖의 영의 세계로 간다.

22. 고로 이 세상에서 살 때 시간을 아껴라. 영을 위해 살아라.

23. 시간이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곳을 산소용접 하여 때우듯 해야 된다.

24. 시간 빠져나가는 곳을 안 때우고 쓰면, 바람 빠져나가듯이, 저장된 가스 빠져나가듯이 다 그곳으로 빠져나간다.

25. 영을 위해 쓰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다. 힘이 다.

26. 시간이 모자라든지 없으면, 그 날은 갈 곳을 못 간다.